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업무협약식  
(6.5.(금) 14:00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

# 인 사 말 씀

---

2020. 6. 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병 두

---

## 1. 인사 말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현안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업무협약식에 참석해주신  
서정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님,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시각각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많은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선포하는 이 때에  
디지털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세 기관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 2. 디지털전환의 흐름과 기회

---

현대 금융시장에서  
성공적인 디지털금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금융산업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untact) · 탈창구화(officeless)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핀테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IT기술과 금융산업의 융합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손쉬운 비대면접촉을 선호함과 동시에  
언제 어느 곳에서든  
높은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함과 동시에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 **3. 인재양성의 중요성**

---

그러나 이러한 금융시장의 대변화와 성공은  
디지털금융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이해하는  
전문성 높은 인재가 꾸준히 유입할 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울시는  
디지털금융에 특화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과학기술원은  
우수한 디지털금융 교수진을 바탕으로  
삼성SDS, 딥서치, 그라운드X 등  
다양한 현장 기업과 협업하여  
산업현장과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전문성 높은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 KAIST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삼성SDS, 딥서치, 그라운드X(카카오 자회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교육할 예정

---

#### 4. 마무리 말씀

---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냐  
가장 똑똑한 종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 “It is not the strongest of the species that survive, nor the  
most intelligent, but the one most responsive to change”

아무쪼록 오늘 업무협약식을 통해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금융환경의 격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업무협약식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서정협 부시장님과 신성철 총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의 관심과 애정 속에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금융업계를 선도할 인재 발굴의 요람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